

2023년 미국 농산물 무역 전망

권 태 진*

1. 미국 농산물 무역 전망: 2022년 11월¹⁾

2023 회계연도의 미국 농산물 수출은 1,900억 달러, 수입은 1,990억 달러로 전망된다.

2022년 11월에 추정한 2023 회계연도(FY)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8월 전망치보다 35억 달러 줄어든 1,900억 달러로 예상된다(표 1). 쇠고기, 닭고기, 밀 수출은 증가하지만, 콩, 면화, 옥수수 수출이 더 많이 감소하리라 전망하기 때문이다. 콩 수출은 생산량 감소와 남미와의 경쟁 격화로 인해 24억 달러 감소한 32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화 수출은 가격 하락과 더불어 수요 감소로 인해 10억 달러 줄어든 60억 달러로 예상된다. 곡물과 사료 수출은 3억 달러 감소하여 46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수출은 거래량 감소로 6억 달러 감소한 18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 가금, 낙농품 수출은 3억 달러 증가한 414억 달러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낙농품 수출은 감소하지만, 쇠고기, 닭고기, 기타 육류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출은 가격 상승에 따라 5억 달러 증가한 103억 달러로 전망된다. 에탄올 수출은 지난 8월 전망치 42억 달러로 변동이 없다. 원예제품 수출도 395억 달러로 변동이 없다.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대두, 면화, 수수, 돼지고기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전망치보다 20억 달러 줄어든 340억 달러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 시장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 GS&J Institute 시니어이코노미스트(kwontj@gsnj.re.kr)

이 글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를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함.

1) Bart Kenner, Hui Jiang, Dylan Russell and James Kaufman. November 29, 2022.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November 2022. USDA.

〈표 1〉 2016-23 회계연도 미국의 농산물 무역¹

단위: 10억 달러

수출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회계연도 전망치	
							8월	11월
수출(A)	144.8	148.6	140.1	139.7	171.7	196.4	193.5	190.0
수입(B)	127.2	136.5	141.4	143.4	163.3	194.0	197.0	199.0
A-B	17.6	12.1	-1.3	-3.7	8.4	2.4	-3.5	-9.0

주¹: 회계연도는 전년 10월 1일부터 그해 9월 30일까지임.

자료: 농무부 경제연구소 및 해외농업국이 상무부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임.

2023 회계연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지난 8월 전망치보다 20억 달러 증가한 1,990억 달러로 전망된다. 원예제품을 비롯하여 설탕, 열대 농산물, 곡물, 사료 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미국 달러의 강세도 한몫하고 있다.

2. 2023년 경제성장 과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여건 변화, 무역 차질 등으로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2년의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이전의 전망과 변함없이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세계 GDP 성장률은 2.9%에서 2.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 곡물 통로인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는 2022년 11월 19일로 예정된 당초의 종료일보다 120일 연장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열려 있는 상태이다. 공급망 압력은 크게 완화되었고, 현물 운송료는 2021년 9월의 최고치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상승과 싸우기 위해 통화 긴축 사이클을 계속하고 있으며,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없다.

2022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인 2.3%에서 1.7%로 낮아졌다(표 2). 목표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2023년 미국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1.0%로 변동이 없다.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12개월간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에 전망한 전년 대비 8.2%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다.

〈표 2〉 2022~2023 회계연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

지역/국가	환율		실질 GDP(1인당 성장률)			세계 점유율		미국농산물 수출 점유율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3 직전 추정치	GDP	인구	
	% 변화율					2019~2021년 평균		
세계 전체 ¹	4.5	1.3	3.2	2.7	2.9			
북미	1.5	0.9	1.8	1.0	1.1	26.3	6.3	28.4
미국 ²	-	-	14.7	1.0	1.0	24.3	4.2	-
캐나다	2.6	-1.3	3.3	1.5	1.8	2.0	0.5	14.9
멕시코	0.4	2.2	2.1	1.1	1.2	1.4	1.6	13.5
신흥 시장 ³	2.8	1.3	3.7	3.6	3.9	25.6	44.1	19.4
브라질	-3.6	-4.6	2.8	1.0	1.1	1.8	2.7	0.7
러시아	-5.2	5.6	-4.9	-2.7	-3.5	1.9	1.9	0.1
인도	6.0	4.4	7.0	6.0	6.1	3.2	17.8	1.2
인도네시아	3.1	5.8	5.4	5.0	5.2	1.3	3.5	1.8
중국	2.6	0.6	3.1	4.4	4.6	17.4	18.2	15.6
유럽/중앙아시아	5.6	4.6	2.3	1.3	2.1	26.1	7.4	7.9
유럽	11.6	1.5	3.1	0.7	1.2	15.2	5.7	6.9
우크라이나	17.1	9.5	-38.0	16.0	26.4	0.2	0.6	0.1
터키	86.1	27.3	5.0	3.0	3.5	0.9	1.1	0.9
아시아/오세아니아	5.3	0.2	2.9	2.7	2.9	39.1	54.3	45.9
일본	18.1	2.1	1.7	1.6	1.7	5.6	1.6	8.1
한국	10.2	-3.1	2.6	2.0	2.1	1.9	0.7	5.3
호주	6.9	606	3.8	1.9	2.2	1.6	0.3	1.0
기타 동남아시아 ⁴	5.6	0.5	4.2	4.8	5.0	1.8	4.0	6.2
남미	5.0	0.3	3.6	1.6	1.4	3.4	5.6	4.7
아르헨티나	41.0	55.4	4.0	2.0	3.0	0.5	0.6	0.1
기타 남미 ⁵	3.9	-0.8	3.9	1.5	1.3	2.9	5.0	4.6
중동/북아프리카	6.8	4.6	5.0	3.6	3.4	3.8	6.0	5.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0	6.4	3.6	3.7	4.0	2.0	14.6	1.3

주¹: 세계 및 기타 지역 통합 환율은 명목 미국 농산물 수출 가중 지수임.

주²: "--"는 비율 변화 또는 점유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냄.

주³: "신흥 시장"에 포함되는 국가는 다른 나열된 지역에도 포함됨.

주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이 포함됨.

주⁵: 칠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포함됨.

자료: 표의 수치는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IMF, Oxford Economics의 데이터와 예측을 사용한 USDA ERS의 계산 및 추정치를 편집한 것임.

전년 대비 근원물가 상승률도 6.6%에서 6.3%로 둔화하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과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실업률은 미국 노동부의 노동 통계국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3.7%를 그대로 유지한다.

북미의 실질 GDP는 2022년에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2022년 실질 GDP 전망치는 3.4%에서 3.3%로 완화되었다. 긴축을 유지하는 통화정책은 추가적인 성장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멕시코 전망치는 2.4%에서 2.1%로 하향 조정되었다. 멕시코의 경제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더욱 엄격한 통화정책은 투자와 소비의 성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 3.1%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은 당초의 1.2%에서 0.7%로 낮추어졌다. 온화한 날씨 덕분에 에너지 전망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가계소득 감소는 여전히 성장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로존의 10월 연간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1.9%로 9월의 43.4%보다 하락했다. 긍정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은 여전히 역사적인 비용 증가에 직면해 있다.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월 9.9%에서 10월 10.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중단으로 인한 지속적인 혼란을 고려할 때 유럽의 에너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미의 실질 GDP는 2022년 3.6%, 2023년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더 높은 에너지 비용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2022년 2.8%, 2023년에는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2022년 GDP 성장률은 이전의 전망과 변함없이 4.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실질 GDP는 2022년 3.1%, 2023년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전망치는 코로나19 발생 억제 제한과 부동산 투자 부문의 침체로 인한 경제 혼란이 지속되면서 기존 4.6%에서 하향 조정되었다. 일본의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1.7%로 변함이 없으며, 2023년 전망치는 1.7%에서 1.6%로 낮추어졌다. 일본 엔화는 중앙은행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높은 에너지 비용 또한 일본의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2022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5%에서 2.6%로,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명목 달러 지수는 여전히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예상된다. 이 지수는 2022년 1월 이후 10% 이상 상승했다. 달러 강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고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3. 품목별 농산물 수출

2023 회계연도 미국의 곡물 및 사료 수출은 8월 전망치보다 3억 달러 감소한 462억 달러로 예상된다. 옥수수 수출액은 185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8월 예상보다 6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연장되고 미국 내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미국의 옥수수 가격은 다른 수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시시피강의 낮은 수위는 걸프만으로의 곡물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출가격 상승이 억눌리고 있다. 옥수수와 수수의 초기 판매 실적은 작년보다 훨씬 낮다. 사료 수출은 8월 예상보다 1억 달러 늘어난 106억 달러로 전망된다. 밀 수출은 81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출물량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전의 전망보다 3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미국의 밀 수출가격은 수년 동안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주요 수출국들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쌀 수출은 남미 수출업체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서반구 상위 시장에 대한 판매가 저조해 2억~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작황마저 좋지 않아 수출 단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3 회계연도 미국의 채종유 종자 및 제품 수출액은 8월 전망치보다 23억 달러, 2022 회계연도 기록보다 14억 달러 감소한 443억 달러로 전망된다. 콩 생산량 감소로 콩 수출액은 2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두박 수출액은 57억 달러로 변함이 없다. 대두유 수출액은 거래량 감소로 1억 달러 감소한 9억 달러로 하락했지만, 단위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2023 회계연도 미국의 면화 수출은 지난 8월 전망치보다 10억 달러 감소한 60억 달러로 전망된다. 면화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는 글로벌 소비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조정으로 면 의류와 천에 대한 가정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023 회계연도에 쇠고기, 다양한 육류 및 가금류의 수출 증가가 돼지고기 및 유제품의 수출 감소를 상쇄함에 따라 가축, 가금류 및 유제품의 수출은 3억 달러 증가한 41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는 국내 쇠고기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은 5억 달러 증가한 10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금류

와 그 제품은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부추김에 따라 브로일러와 칠면조 고기의 수출량이 약간 증가하여 수출액은 3억 달러 증가한 72억 달러로 추정된다. 돼지고기는 수출 가능 물량의 증가와 특히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액은 3억 달러 감소한 62억 달러로 예상된다. 유제품은 탈지분유, 치즈, 그리고 몇몇 다른 제품들의 수출량이 줄어들어 1억 달러 감소한 89억 달러로 예상된다.

2023 회계연도 미국의 원예제품은 8월 전망치인 395억 달러와 변동이 없다. 전체 및 가공된 견과류 제품 수출은 95억 달러로 변함이 없으며, 대부분의 선적은 유럽과 아시아로 예정되어 있다. 가공 과일과 채소는 캐나다로의 꾸준한 출하 증가로 73억 달러로 변함이 없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캐나다와 멕시코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수출에 힘입어 71억 달러로 변함이 없다.

2023 회계연도 에탄올 수출은 2022년보다 약간 증가한 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탄올 수출 단가는 높은 콩 가격과 가솔린 가격의 지지로 역사적인 고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에탄올 수출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세계 여러 시장의 침체 위협으로 미국의 에탄올 수출물량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미국산 에탄올 수출량의 1/3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연료용 에탄올 수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에탄올 수입국 2위를 차지하는 한국에 대한 산업용 에탄올 수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가솔린 가격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에탄올의 유럽 수출은 높은 수입 관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산업용 에탄올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멕시코나 인도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너지기구의 전망에 의하면 2023년 달러에 대한 브라질 화폐의 실질 가치가 약세로 유지되어 에탄올 수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4. 지역별 농산물 수출

4.1. 아시아

중국의 수출 전망치는 8월보다 20억 달러 감소한 34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남미로부터의 경쟁 재개로 대두 수출 전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면화 수출 단가

하락, 미국의 수수 생산량 급감, 돼지고기 수요 위축 등이 무역 전망을 더욱 제약하고 있다.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가장 큰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수출 전망치는 152억 달러로 변동이 없다. 쇠고기 수출 가치가 높아지면 옥수수 판매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수출 전망치가 1억 달러 감소한 것은 주로 면화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파키스탄에 대한 면화 수출 단가가 하락하면서 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2. 서반구

캐나다의 수출 전망치는 옥수수 전망치 감소로 인해 2억 달러 감소한 28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 대한 수출 전망치는 콩, 옥수수, 돼지고기 무역 예상치가 낮아지면서 5억 달러가 줄어든 280억 달러로 집계됐다. 카리브해, 중남미 지역의 수출 전망치는 변동이 없다.

4.3.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은 이전 예상치보다 2억 달러 감소한 12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로 콩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영국으로의 수출은 1억 달러 감소한 18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2022 회계연도 수출과 같은 수준이다. 불리한 환율과 불황의 위협 때문에 미국의 수출이 전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정학적, 경제적 혼란이 무역 전망을 어렵게 하면서 구소련의 수출 전망치는 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수출 전망치는 터키에 대한 면화 수출 기대가 낮아지면서 1억 달러가 감소했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수출 전망치는 각각 62억 달러와 21억 달러로 변함이 없다.

5. 품목별 농산물 수입

2023 회계연도의 농산물 수입은 1,99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2 회계연도의 1,94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가 더 많고 8월의 예상치보다 20억 달러가 더 많은 것이다. 2023 회계연도에는 축산물, 낙농품, 가금류 제품군을 제외한 모든 주요 제품군의 수입 예상치가 기존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 외국산 농산물이 미국 내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수입 물량에 대한 상승 압력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국내 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다. 소비자들은 식품과 다른 생활필수품 소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 요인에 의한 영향은 덜 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2023 회계연도 미국의 농산물 총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 회계연도와 2022 회계연도의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각각 14%와 19%로 추정)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2023 회계연도 전망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연평균 농산물 수입 증가율이 0~7%에 달했던 패턴으로 회귀할 것이다.

2023 회계연도에 수입이 가장 뚜렷하게 증가할 농산물은 원예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예제품 수입 전망치는 8월 전망치보다 10억 달러 상향 조정된 1,003억 달러로 2022 회계연도의 972억 달러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원예 제품군 내에서 이전 예상보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신선과일로 3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주요 과일 생산 지역의 지속적인 가뭄, 높은 생산 비용, 감귤 생산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남미와 중미 주요 수출국에서는 생산 호조가 예상된다. 신선 채소 수입 전망치는 신선과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요인이 같아 2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2023 회계연도 가공 채소 수입은 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앞서 논의한 미국 달러화의 강력한 구매력으로 인해 기존 전망보다 1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증류주 수입 전망치도 2억 달러, 맥아 맥주와 와인 수입 전망치도 단가가 계속 상승해 각각 기존 전망치보다 1억 달러씩 상향 조정됐다. 과일 주스, 견과류, 에센셜 오일, 절화 및 유아용 육수는 변함이 없다.

미국의 설탕 및 열대 농산물 수입은 2023 회계연도에 이전 예측보다 5억 달러, 2022 회계연도보다 16억 달러 증가한 30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미료와 제품 수입

은 72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번 예상보다 1억 달러나 높은 것이다. 커피와 제품의 수입은 남미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호조로 인해 수입액과 수입량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코아와 제품도 수입 증가에 따라 1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살아있는 돼지의 수입 감소가 쇠고기와 가금류의 수입 증가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2023 회계연도의 가축, 가금류 및 유제품 수입은 1억 달러 감소한 262억 달러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입은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공급 부족으로 교역이 제한됨에 따라 주로 물량 감소로 인해 1억 달러가 감소한 26억 달러로 예상된다. 산 돼지의 수입은 1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산 돼지에 대한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용 쇠고기의 감소 예상치에서 2억 달러 증가한 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국내 칠면조 고기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금류와 제품 수입은 1억 달러 증가한 14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유제품 수입은 변함이 없다.

곡물 및 사료 제품 수입 전망치는 수확량 감소, 생산비 상승,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격 압박을 받고 있어 기존 전망치보다 4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밀, 곡물 가공품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수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채종유 종자와 채종유 종자 제품 수입 전망치는 캐나다산 카놀라유 수입 호조와 더불어 국내 콩 생산량의 완만한 감소로 인한 단가 상승 기대와 함께 2억 달러 상향 조정되었다.

6. 지역별 농산물 수입

6.1. 서반구

서반구로부터의 역내 수입은 1,167억 달러로 이전의 예상치보다 1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2023 회계연도에 469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되어 미국에 대한 최대의 외국 농산물 공급국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373억 달러로 두 번째로 큰 공급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예측은 예상되는 수입의 감소

로 8월의 예측과 변함이 없다. 미국에 판매되는 캐나다 농산물의 예상 가격은 곡물, 가공 곡물 제품, 채종유 종자 및 관련 제품, 신선 또는 가공 채소의 미국 수입에 대한 상향 조정으로 인해 11억 달러가 증가한 37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 회계연도 중미 수입 전망치는 8월 전망치인 79억 달러와 변동이 없다. 2023 회계연도에 남미로부터의 수입은 이전의 예상치인 228억 달러보다 6억 달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 페루, 기타 남미 국가들의 수입액은 당초 예상치보다 각각 2억 달러, 1억 달러, 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예측은 주로 그 지역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대한 좋은 생산 예측에 기인한다. 브라질의 전망도 설탕, 커피, 커피 제품 수입 증가로 2억 달러가 상향 조정됐다.

6.2. 유럽

2023년 회계연도 EU로부터의 수입은 360억 달러로 예상되며, 예상되는 돼지고기 수입 감소는 맥주, 증류주, 구운 제품과 같은 곡물 제품의 증가와 동일 수준으로 8월 예측치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이전의 2023 회계연도 전망과 변함이 없다.

6.3. 아시아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전망은 2023년 회계연도에 307억 달러로 기존 전망보다 1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동남아시아가 이 지역의 수입을 1억 달러 증가시켜 189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태국산 쌀과 팜유, 코코넛 제품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전망은 지난 분기와 변동이 없다.

6.4.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로부터의 수입 전망치는 올해 견실한 생산이 예상되는 뉴질랜드로부터의 와인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3 회계연도 69억 달러로 기존 전망치보다 1억 달러 상향 조정되었다.

6.5. 아프리카와 중동

2023년 회계연도에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코코아 생산량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 때문에 1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3 회계연도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은 이전 예측과 변함이 없다.

참고문헌

Kenner, Bart, Hui Jiang, Dylan Russell, and James Kaufman.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November 2022, AES-122,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nd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November 29, 2022.